

## ‘상비약 약국 외 판매’ 시민 설문조사 결과

-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, “필요하다” (97.4%)
- 상비약 편의점 구입 : 공휴일, 심야..약국 이용이 불가능 때 (74.6%)
-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: “필요하다”(86.8%)
- 편의점 판매 부작용 경험 : “없다” (93.52%)
- 판매 확대 품목 : 제산제, 지사제, 포비돈액, 화상연고 순

경실련은 지난 8월 1일(수)~2일(목, 15:30까지)에 걸쳐 ‘상비약 약국 외 판매’제도와 관련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.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,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부작용 경험,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이다.

이 조사에는 시민 1,745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, ▲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도에 대해서 97%(1699명)가 알고 있으며,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%(1693명)가 필요하며,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%(1574명)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(표1 참고). ▲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는 공휴일,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.6%(1179명),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.3%(242명),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.4%(117명) 순으로 응답하였다.(표2 참고)

<표1> 상비약 제도 관련 인지도, 필요성, 구매경험

응답내용	인지도		필요성		구매경험	
	응답수	비율(%)	응답수	비율(%)	응답수	비율(%)
예	1699	97.36	1693	97.02	1574	97.36
아니오	46	2.64	38	2.18	171	2.64
잘모르겠다	-	-	14	0.80	-	-
합계	1745	100	1745	100	1745	100

<표2>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매 이유

응답내용	응답수	비율(%)	순위
①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	117	7.41	3
② 공휴일,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	1179	74.62	1
③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	242	15.32	2
④ 편의점에서 다른물건을 구매하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할 때	24	1.52	4
⑤ 의약품이 소포장이어서 이용이 편리할 때	13	0.82	5
⑥ 기타	3	0.19	6
무응답	2	0.13	7
합계	1580	100	

또한, 현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지정 심의에서 가장 쟁점 사항인 ▲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'확대'가 86.8%(1,515명)였으며, 현행 수준 유지는 9.9%(173명), 현행 보다 축소는 1.7%(29명)로 나타났다.(표3 참고)

<표3> 상비약 품목에 확대에 대한 생각

응답내용	응답수	비율(%)
① 확대 해야한다	1515	86.82
② 현행 수준이 적정하다	173	9.91
③ 축소 해야 한다	29	1.66
④ 잘 모르겠다	26	1.49
무응답	2	0.11
합계	1745	

그리고 편의점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확대해야할 품목으로는 제산제(1011명), 지사제(1009명), 포비돈 액(914명), 화상연고(861명) 순으로 나타났다.(표4 참고)

<표4> 확대 해야 할 상비약 품목

응답내용	응답수	비율(%)	순위
① 지사제(설사를치료하는약)	1009	15.42	2
② 제산제 (속쓰림, 위통 등에 쓰이는 위장약)	1011	15.45	1
③ 항히스타민제 (두드러기, 알레르기 증에 쓰이는 약)	676	10.33	6
④ 화상연고	861	13.16	4
⑤ 진해제 (기침을 진정시키는 기침약)	596	9.11	8
⑥ 아연화연고 (칼 등 예리한 물건에 의해 다친 깊은 상처 보호)	622	9.50	7
⑦ 과산화수소	760	11.61	5
⑧ 포비돈 액 (찢긴 상처 등 살균소독 약, 일명 빨간약)	914	13.97	3
⑨ 기타	73	1.12	9
추가답변	10	0.15	11
무응답	12	0.18	10
합계	6544	100	

주) 중복선택 가능

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0.97%(1745명 중 17명) 뿐이었고,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는 93.5%(1,632명)이었다.

<표5>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 복용 후 부작용 경험

응답내용	응답수	비율(%)
① 있다	17	0.97%
② 없다	1632	93.52%
③ 잘 모르겠다	96	5.50%

※ 참고

1.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특정집단의 개입 의혹
2.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문

## 1. 특정집단의 설문조사 개입 의혹

경실련은 8월 1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설문조사를 실시하던 중 8월 2일(목)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150분간 비슷한 반응을 하는 응답자가 약 1,780명이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. 이에 경실련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자가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계획보다 이른 8/2일(목) 오후 6시에 설문조사를 마감하였다.

경실련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자유로운 공론장에 특정한 답변을 하는 응답자가 같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.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국민의 편의는 무시한 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여론의 왜곡을 시도한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로 여겨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. 아래는 8월 2일(목)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150분 동안 답변한 결과이다.

1. <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필요성> 질문의 특정집단의 개입 전후 비교

- 일반 시민들 조사에서는 1693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특정집단이 응답한 답변은 1480명이 아니오(필요하지 않다)하는 답변을 하였음.

[표1] <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필요성> 질문의 특정집단의 개입 전후 비교

응답내용	전 <sup>1</sup>	후 <sup>2</sup>
① 예	1693	162
② 아니오	38	1480
③ 잘모르겠다	14	143
합계	1745	1785

주1) 답변기간 : 8/1. 13시 30분 ~ 8/2 15시 30분  
 주2) 답변기간 : 8/2. 15시 30분 ~ 8/2 18시 30분 (150분)

2. <편의점 판매 상비약 복용 후 부작용 경험> 여부 질문의 특정집단의 개입 전후 비교

- 일반 시민들 조사에서는 17명이 “경험하지 못했다”고 답변하였으나, 특정집단의 응답은 776명이 ‘부작용을 경험했다’고 답변하였음

[표2] <편의점 판매 상비약 복용 후 부작용 경험 여부> 질문의 특정집단의 개입 전후 비교

응답내용	전	후
① 있다	17	763
② 없다	1632	444
③ 잘 모르겠다	96	578
합계	1745	1785

3. <편의점 판매 상비약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요인> 질문의 특정집단의 개입 전후 비교

- 일반 시민들 조사에서는 6명이 “증상과 다른 의약품 선택하는 오용”고 답변하였으나,

특정집단의 응답은 370명이 “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지 못해서”라고 답변하였음

[표3] <편의점 판매 상비약 복용 후 부작용 발생요인> 질문의 특정집단의 개입 전후 비교

응답내용	전	후
① 증상과 다른 의약품 선택하는 오용	6	212
② 권장 복용량 이상의 과용	3	88
③ 의약품 관리 부실로 변질되서	2	34
④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지 못해서	2	370
- 무응답	1	14
- 기타답변	1	13
합계	17	767

4. <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> 여부 질문의 특정집단의 개입 전후 비교

- 일반 시민들 조사에서는 1515명이 “확대”를 응답했으나, 특정집단의 응답은 1507명이 “축소”를 답변하였음

[표4] <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여부> 질문의 특정집단의 개입 전후 비교

응답내용	전	후
① 확대 해야 한다	1515	59
② 현행 수준이 적정하다	173	189
③ 축소 해야 한다	29	1507
④ 잘 모르겠다	26	30
- 무응답	2	0
합계	1745	1785

5. <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축소> 여부 질문의 특정집단의 개입 전후 비교

- 일반 시민들 조사에서는 전체 27명이 미미하게 축소를 응답하였으나, 특정집단의 응답자 1473명이 “오남용 방지, 부작용 축소”를 이유로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함.

[표5]. <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축소 여부> 질문의 특정집단의 개입 전후 비교

응답내용	전	후
①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	17	997
②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	7	383
③ 현행 편의점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	5	93
④ 기타	0	44
- 무응답	0	5
합계	29	1473

## 2.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

### 1. 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 인지도

응답내용	일반시민		특정집단의 응답	
	응답수	비율	응답수	비율
예	1699	97.36%	1752	98.15%
아니오	46	2.64%	33	1.85%
합계	1745	100%	1785	100%

### 2.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가 필요 여부

응답내용	일반시민		특정집단의 응답	
	응답수	비율	응답수	비율
예	1693	97.02%	162	9.08%
아니오	38	2.18%	1480	82.91%
잘모르겠다	14	0.80%	143	8.01%
합계	1745	100%	1785	100%

### 3. 상비약 편의점 구매 경험

응답내용	일반시민		특정집단의 응답	
	응답수	비율	응답수	비율
예(3-1번 응답)	1574	90.20%	629	35.24%
아니오(3-2번 응답)	171	9.80%	1156	64.76%
합계	1745	100%	1785	100%

#### 3-1). 상비약 편의점 구매 상황

응답내용	일반시민		특정집단의 응답	
	응답수	비율	응답수	비율
① 편의점이약국보다가까울때	117	7.41%	93	14.79%
② 공휴일,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	1179	74.62%	225	35.77%
③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 가능할때	242	15.32%	47	7.47%
④ 편의점에서 다른물건을 구매하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할 때	24	1.52%	158	25.12%
⑤ 의약품이 소포장이어서 이용이 편리할 때	13	0.82%	13	2.07%
⑥ 기타	3	0.19%	89	14.15%
무응답	2	0.13%	4	0.64%
합계	1580	100%	629	100%

### 3-2).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매한 경험이 없는 이유

응답내용	일반시민		특정집단의 응답	
	응답수	비율	응답수	비율
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해서	28	16.37%	7	0.61%
② 지사제, 항히스타민제 등 필요한 효능의 품목이 없어서	18	10.53%	7	0.61%
③ 약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	20	11.70%	13	1.12%
④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해서	21	12.28%	878	75.95%
⑤ 약국보다 싸다고 생각해서	17	9.94%	148	12.80%
⑥ 기타	60	35.09%	93	8.04%
무응답	7	4.09%	10	0.87%
합계	171	100%	1156	100%

### 4.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먹고 부작용 경험 유무

응답내용	일반시민		특정집단의 응답	
	응답수	비율	응답수	비율
① 있다	17	0.97%	763	42.75%
② 없다	1632	93.52%	444	24.87%
③ 잘 모르겠다	96	5.50%	578	32.38%
합계	1745	100%	1785	100%

### 4-1.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이유

응답내용	일반시민		특정집단의 응답	
	응답수	순위	응답수	순위
① 증상과 다른 의약품 선택하는 오용	6	1	212	2
② 권장 복용량 이상의 과용	3	2	88	3
③ 의약품 관리 부실로 변질되서	2	3	34	4
④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지 못해서	2	3	370	1
⑤ 의약품 자체에서 비롯된 유해성	1	5	30	5
⑥ 잘 모르겠다	1	5	6	8
무응답	1	5	14	6
기타답변	1	5	13	7
합계	17		767	

### 5.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
응답내용	일반시민		특정집단의 응답	
	응답수	순위	응답수	순위
① 확대 해야 한다 (5-1번, 5-2번 만 답변)	1515	1	59	3
② 현행 수준이 적정하다 (설문 끝)	173	2	189	2
③ 축소 해야 한다 (5-3번 만 답변)	29	3	1507	1
④ 잘 모르겠다	26	4	30	4
무응답	2	5	0	-
합계	1745		1785	

5-1)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이 확대 해야 한다면 이유는 ?

응답내용	일반시민		특정집단의 응답	
	응답수	순위	응답수	비율
① 현재 판매되고 있는 효능군의 의약품 품목이 부족함	538	2	19	2
② 지사제,화상연고등 다른 효능의 의약품이 필요함	633	1	27	1
③ 의료비 부담, 환자의 편의 등으로 자가치료의 여건 마련을 위해서	166	3	8	3
④ 다른 나라에선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고 있어서	144	4	5	4
기타답변	23	5	0	-
무응답	12	6	0	0
합계	1516		59	

5-2)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이 확대 해야 하는 품목 (중복선택)

응답내용	일반시민		특정집단의 응답	
	응답수	순위	응답수	순위
①지사제(설사를치료하는약)	1009	2	36	1
② 제산제 (속쓰림, 위통 등에 쓰이는 위장약)	1011	1	35	4
③ 항히스타민제 (두드러기, 알레르기 증에 쓰이는 약)	676	6	25	6
④화상연고	861	4	33	5
⑤ 진해제 (기침을 진정시키는 기침약)	596	8	19	7
⑥ 아연화연고 (칼 등 예리한 물건에 의해 다친 깊은 상처 보호)	622	7	18	8
⑦ 과산화수소	760	5	36	1
⑧ 기타	73	9	1	9
⑨ 포비돈 액 (찢긴 상처 등 살균소독 약, 일명 빨간약)\	914	3	36	1
추가답변	10	11	0	-
무응답	12	10	0	-
합계	6544		239	

5-3) 상비약 품목이 축소 이유

응답내용	일반시민		특정집단의 응답	
	응답수	순위	응답수	순위
①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	17	1	997	1
②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	7	2	383	2
③ 현행 편의점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	5	3	93	3
기타	0	-	44	4
무응답	0	-	5	5
합계	29		1473	100%